

경제

지역中企 절반 “추석 상여금 지급”

지난해보다 7.8%포인트 줄어

업체 30% 가까이 자금난 허덕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올 추석 상여금 봉투가 얇아질 전망이다. 또 추석을 앞두고 자금 수요의 30% 가까이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 지급, 57.3% = 중소기업 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21일 125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석자금 실태 조사 결과,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업체가 전체의 57.3%로 나타났다. 지난해 65.1%가 상여금을 주겠다고 답한 것에 견줘 7.8%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업체별 상여금 지급 수준도 기본급의 59.2%로, 전년도의 61.9%보다 2.4%포인트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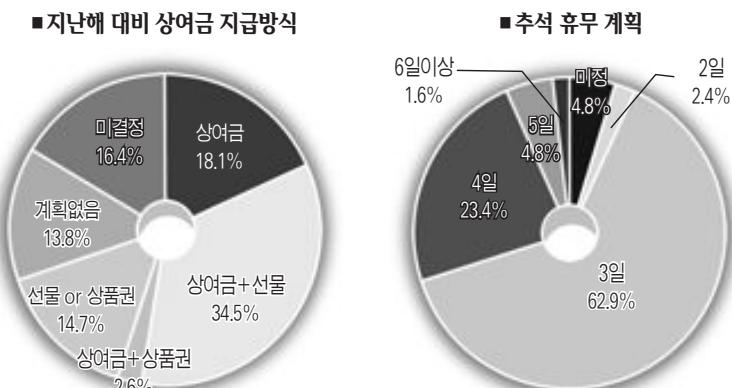
또 ‘지난해와 비슷하다’는 업체가 45.2%였지만, ‘지난해보다 적게 준다’(9.7%)는 응답이 ‘많이 준다’(2.4%)보다 많게 나왔다.

지급 방식으로는 ‘상여금과 선물세트’가 34.5%로 가장 많았고 상여금만 지급(18.1%), 선물세트나 상품권(14.7%), 상여금과 상품권(2.6%) 등이 순이었다.

◇3일간 큰 숫자, 62.9% = 올해 추석 휴무는 ‘3일 연휴만 준다’는 업체가 62.9%로 가장 많았다. 4일 휴무업체는 23.4%, 5일 이상 쉬는 업체는 4.8%로 나타났다. 6일 이상 장기 휴무를 하는 업체도 1.6%에 달했다.

◇자금 수요 곤란, 56.8% = 중소기업 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이번

■ 지난해 대비 상여금 지급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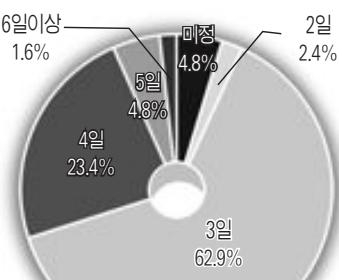


조사에서는 또 추석을 앞둔 자금 사정에 대해서는 56.8%가 ‘곤란·매우 곤란하다’고 답했고, ‘원활하다’는 응답은 8.0%에 그쳤다. ‘곤란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55.3%) 때보다 1.5%포인트 늘었다. 주요 원인(복수응답)은 매출감소(69.2%), 판매대금 회수지연(49.0%), 원자재 가격상승(42.3%) 순이었다.

추석을 앞두고 필요한 자금은업체 당 평균 2억1천800만원이지만 이 중 6천20만원은 확보하지 못해 자금부족률이 27.5%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남품대금 조기회수 34.7%, 결제자금 연기 32.7% 등으로 부족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조사 업체의 3.0%는 제도 금융권에서 자금 확보가 어려워 사채 조달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도 9.9%에 달했다.

/김자율 기자 dok2000@kwangju.co.kr

■ 추석 휴무 계획



추석 상여금 기아차 50%·금호타이어 100%

귀향교통비·상품권 별도 지급 … 3~6일간 쉬어

광주·전남 주요 기업들은 추석을 맞아 50~1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3~6일의 휴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상여금(대리·사원들 기본급의 50%)과 귀향교통비(80만원), 유류티켓(10만원)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제휴 운송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1만원 상당)도 제공한다. 기아차는 2~6일까지 5일간 쉰다.

명시된 기본급의 100%인 상여금을 주고, 4일간 쉴 계획이다.

캐리어는 올 추석 전체 직원들에게 10만원 상당 상품권과 상여금(기본급의 100%)을 지급하는 한편, 6일간 추석 휴무를 계획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상여금(50%) 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면, 금호고속은 3만원 상당의 선물을 직원들에게 나눠줄 예정이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단협에 따라 생산직 근무자들에게만 상여금 100%를 지급하고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다. 추석 휴무는 3일.

보해양도 상여금과 3만원 상당의 자사 주류를 선물로 나눠주며 3일 간 휴무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직원들에게 연중 네 차례로 걸쳐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3월(10%), 6월(60%)에 이어 추석을 앞둔 9월 3분기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전력도 네 차례의 성과금(1년 352%) 지급 시기에 따라 9월 평균 50% 수준의 성과금이 나간다.

한국화력은 3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다. 추석 휴무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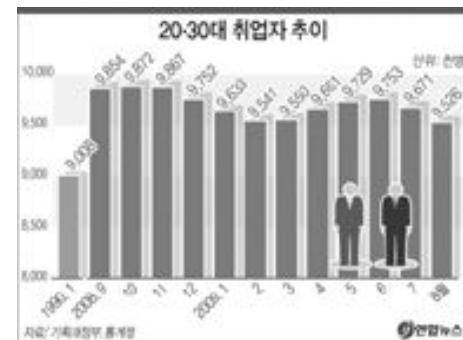
보해양도 상여금과 3만원 상당의 자사 주류를 선물로 나눠주며 3일 간 휴무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직원들에게 연중 네 차례로 걸쳐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3월(10%), 6월(60%)에 이어 추석을 앞둔 9월 3분기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전력도 네 차례의 성과금(1년 352%) 지급 시기에 따라 9월 평균 50% 수준의 성과금이 나간다.

한국화력은 3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다. 추석 휴무는 3일.

20, 30대 취업자수 최악

1년새 27만명 감소 … 8월 952만명 그쳐



정부는 20대와 30대 취업자 950만 명선을 지키기 위해 청년 인턴제 등 공공 부문 일자리를 내년에도 운영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기업 채용 등 민간 부문이 살아나지 않아 연말에 920만 명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가 경제에 가장 중요한 20대와 30대의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 올해로 끝내기로 했던 청년 인턴을 내년에도 축소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30대 실직 가능을 위해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정부의 공공 부문 일자리 지원에 힘입어 3월 955만명, 4월 966만1천명, 5월 972만9천명, 6월 975만3천명으로 증가했으나 신규 채용 부진으로 7월 976만1천명, 8월 952만6천명까지 급격히 나빠졌다.

/연합뉴스

주식 쇠고기 점검

식육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광주시 북구청 직원들이 21일 밀바우 시장의 한 식육점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 여부

를 점검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계속하는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대형할인점·일반

/위치량기자 jrwi@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법원 앞에서 70m 번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 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품평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코스피지수 1,69.50 (-4.21)

코스닥지수 533.10 (+1.57)

금리 (국고채 3년) 4.43% (+0.06)

원·달러 환율 1,204.40원 (-3.4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10-7570-7525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